광주시 이달 결정 물기술인증원 유치 총력

인프라·철도·항공 입지 최적 첨단산단 후보지 내세워
환경부 설립위 구성 비공개 결정…인천·대구와 경쟁 치열

광주시가 유치 경쟁에 뛰어든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가 1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 기술과 관련 산업 우수성을 공인하고 육성하는 핵심기관이다. 현재 광주시는 물 산업 소외 지역임을 내세우며 인천·대구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달 중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열어 인증원 입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후보 도시와 지연, 학연 등이 없는 위원 10명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비공개로 입지를 결정한다.

또 그동안 물관리 기술과 제품의 위생, 안전 등 인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겨 공정성 논란이 지속하자 공공기관인 인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11월 인증원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용역 결과 광주는 물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인천은 수도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이, 대구는 물 산업 기관 집적화로 업무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광주와 대구는 수도권 중심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재구축이 요구되는 점, 인천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과 배치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환경부는 후보 도시 6곳(광주·대구·인천·서울·부산·대전)을 대상으로 지난해 8~10월 현장조사, 설명회, 현장 실사 등을 벌여 광주를 비롯해 대구, 인천 등 3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광주시는 인증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유치제안서를 냈다. 또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으며 광주 유치를 촉구하는 시의회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원 등 연구 인프라와 철도·고속도로·항공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인천에 환경산업연구단지, 대구에 물산업클러스터 등 물 산업 기관이 이미 들어서 있는 점을 들어 수도권과 영남권 설립 시 불균형 심화 및 공정성 확보 취지가 퇴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에는 물 산업 관련 기업이 10개 정도로 인천·대구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선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10일 광주 ACC호텔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등 28개 의료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 협약식을 했다.

전남 섬, 국가 성장동력·품격높은 삶 터전 만든다

도서종합개발 632억 투입
11개 시·군 172건 사업

올해 전남 연안 11개 섬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6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도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18~2027년)의 올해 연도 사업으로 11개 시·군 96개 섬에서 172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 632억원 중 국비가 519억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지난해 사업비 480억원 보다 152억원이 늘어났다.

이 사업은 섬을 국가 성장동력, 품격 높은 삶의 터전,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영토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지난해 최종 확정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모두 1조 4972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8.5%인 7262억원(국비 6820억원·지방비 442억원)이 전남에 반영됐다.

10년 간 사업 대상 지역은 목포·여수·무안·고흥·보성·강진·해남·영광·완도·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이며, 198개 섬에 680건의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 가운데 올해 11개 시·군을 특수상황 지역(목포·여수·무안)과 성장촉진지역(고흥·보성·강진·해남·영광·완도·진도·신안)으로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특수상황 지역 3곳 23개 섬에는 39건 사업에 203억원을, 성장촉진지역 8곳 73개 섬에는 133건 사업에 428억원을 반영했다. 특수상황 지역은 개발대상 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며, 성장촉진지역은 인구증가율, 재정도 등 낙후도 하위 30% 이내인 시·군 도서지역이다.

올해는 신안에 215억원의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배정됐고, 여수 185억원·완도 60억원·고흥 54억원·진도 34억원 등이다. 세부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 특산물직판장 개설, 공동작업장 설치, 선착장·방파제·물양장 등 어업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방조제·배수갑문 등 농업기반시설과 주민쉼터·복지회관·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섬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마련 등도 주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조직위 의료지원 지정병원 업무 협약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0일 광주 ACC 디자인 호텔에서 광주수영대회 의료지원을 위한 지정병원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등 광주 지역 22개 병원장과 전남 여수·순천 지역 3개 병원장, 지역 의료단체장 3명 등 28개 의료기관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한 병원과 단체는 수영대회 기간 선수촌, 경기장, 훈련장, 호텔 등 19개 시설에 의사, 간호사 등 150여명의 의료 인력과 구급차·의료기기를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 1년간 회계감사 한번도 안해

비정규직 1억7000만원 횡령
재단 "전혀 몰랐다" 해명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수억원대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계정산을 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직원이 1년 동안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횡령했는데도 재단 측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해 허술한 회계처리를 시인했다.

10일 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재단 직원인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2년부터 재단에서 근무했던 A씨는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과 전라도 천년 기념 '아트&버스킹 사업'을 맡은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재단은 A씨 사망 이후 A씨가 맡았던 업무를 조사하던 중 A씨가 아트&버스킹 사업 예산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공연단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해당 사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사들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금액은 전체 사업비 2억1000만원 중 1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 법인카드로 11개월간에 거쳐 200만~1000만원까지 수십차례 상품권을 구입했는데도 재단 측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결재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지출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내부결재를 거쳐 집행하고 집행 후에는 회계처리를 한다. 또 회계담당은 한 달에 한 번 가량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회계정산을 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전남문화관광재단은 11개월 동안 이같은 절차를 생략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정산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평동·빛그린산단에 개방형 체육관 건립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모
4곳 선정 160억 확보

광주지역 산업단지 주변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10일 광주시는 "지난해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 4곳이 선정되면서 국비 총 160억원을 확보하고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이 선정됐다.

평동산단 개방형 체육관은 2020년까지 옥동 제2근린공원에 전체면적 4000㎡에 1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실내체육관과 함께 도서관과 놀이방 등 문화시설도 들어선다.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인 빛그린산단에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전체면적 3800㎡에 1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 체육관에는 체육시설, 수영장, 유아 놀이터, 다목적룸 등을 포함한다.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이 국민체육센터는 총 14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00~3200㎡에 소규모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룸 등을 건립한다. 사업 기간은 무등경기장은 2020년까지, 상무시민공원은 2021년까지다.

광주시 김경호 체육진흥과장은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대거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복합 공공 생활체육 시설 조성으로 차별없는 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중기·소상공인 경영자금 4500억 지원

전남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4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2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경영안정 지원금을 증액했다. 사업별로는 운영자금 3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 규모다.

일반 기업은 최대 3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대출이자 가운데 일부 이자를(1.6%~3.0%)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